

밑반찬으로 전달되는 이웃사랑

온누리봉사회 8년째 저소득가정에 밑반찬 조리·제공

매주 화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이면 고소한 냄새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건물 주변이 시끌벅적해진다.

혼자 사는 불우 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에 밑반찬을 만들어 8년째 제공하고 있는 온누리봉사회의 활동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온누리봉사회가 불우노인들의 부실한 밥상에 제대로 된 반찬을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섯 가정에서 시작한 봉사활동은 어느새 110가구로 늘어났다.

110가구가 적어도 3일은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식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는 모습은 일류 요리사의 솜씨가 부럽지 않다.

건강과 영양을 생각해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선이나 육류 중 한 종류와 제철 채소류 한 종류를 꼭 포함해 정성스레 반찬을 다 만들어 갈 때쯤이면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든다. 만들어진 밑반찬을 제주시 조천읍에서 두둑까지 흩어져 있는 이웃의 집에 직접 배달하는 봉사자들이다.

우연히 밑반찬 배달봉사를 맡은 이후 매주 20여가구를 들른다는 고혁준씨는 "우연히 하게 된 일이지만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이 봉사를 하고 싶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봉사활동이라도 주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리를 전담하는 자원봉사자만 20여명, 반찬을 배달하는 봉사자는 3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평범한 주부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 회사원, 개인택시 기사 등 다양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비용을 서로 나눔으로써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온누리봉사회 이기영 회장은 "한달에 11번은 꼭 시간을 내야 하지만 회원 모두가 기쁘게 활동하고 있다"며 "자기가 빠지면 몇 가정의 반찬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마음에 다들 적극적"이라고 회원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밑반찬을 제공받고 있는 한 할머니는 "혼자 사는 내가 언제 이런 반찬 만들어 먹겠어. 그 젊은 양반 올 때마다 맛난 반찬 만들어 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며 "잊지 않고 찾아와 줘서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회원 회비만으로는 반찬 재료값을 대는 데 한참 모자라고 알음알음 식재료와 후원금을 기부 받기도 하지만 모든 게 예전



△온누리봉사회원이 10월 29일 행복나눔터에서 정성스레 밑반찬을 조리하고 있다.

만 못하다.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일손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질 실정이다.

이 회장은 "밑반찬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예산이 부족해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면서 "조그만 나눔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의 전화는 726-5786, 011-699-3515.

<이소영 명예기자>



'어려울 땐 나눠쓰고 아껴써야'

산지천 나눔장터 '성황'

제주특별자치도와 아름다운 가게가 공동 주관한 나눔장터가 10월 25일 제주시 산지천 분수공원에서 많은 도민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장터에서는 제주도청 직원들이 직접 수집·기증한 물품을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했으며, 판매수익금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인다.

또 어린이 베품시장과 도시교환전, 지역 병사들의 특별 물품 기증 및 판매코너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아름다운 가게 일일점장으로 참여한 김태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나눠 쓰고 다시 쓰고 세사용하는 생활문화 운동이야말로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다시금 생활의 지혜와 비덕으로 제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장애여성 아보우등반
시설 탈방·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 축구대회 화보 4·5면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제4회 희망제주복지포럼
- 사회복지소식 8면
소식마당·알림마당



전화금융사기 조심하세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실체와 수법은?

은행,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통신회사, 카드회사, 보험회사 등 사칭 최근 전화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입니다.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상당을 원하시면...



누군가 명의 도용...
예금보호를 위해 은행
현금지급기로 가져서
사키는대로 하세요.



사기범은 해외 콜센터 운영

대만, 중국 조선족 고용
(ARS + 직접통화)

사기 수법은 다양화, 지능화

세금, 보험료 환급, 카드도용
통신요금, 우체국 택배,
자녀납치 가장 협박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시도

사기행위는 전화를 이용
● 현금지급기를 통한 송금 요구,
이체자금 편취



피해예방을 위한 금형상식!!

-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 현금지급기를 통해 금전환급(세금, 보험료 환급 등) 및 계좌정보 보호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기관에 언제 확인하세요!!

[피해발생시]

- 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정지 요청, 경찰신고(112)
-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요청

“첫 등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장애여성 · 비장애여성, 25일 아부오름 동반 등반

맑은 하늘, 부드러운 햇살, 시원한 바람이 함께하는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장애여성인 봉사단(화사모)의 도움을 받으며 비장애여성들과 함께 나즈막한 아부오름(앞오름)에 올랐다.〈사진〉

낮지만 정상에 처음 오른 기분은 휠체어를 탄 여성장애인들에겐 남달랐다. 생태전문가의 해설과 간단한 풀잎공예를 함께 한 후 소감을 묻자 “걸지 못하니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는데 너무 좋고, 방아깨비도 만들고 정말 재밌고 좋아요” “휠체어를 타고 오다니... 화사모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산에 처음 올라와 봤어요. 감사하며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라며 모두 처음의 경험과 감사함을 얘기했다.

이번 등반은 자연이 주는 정서와 생태경험으로 장애여성의 자존감을 형성하고, 장애여성 및 비장애여성의 문화체험단을 구성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과 비장애여성들의 장애인식 개선과 더불어



어 사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주여성장애인상당소가 진행하는 ‘장애여성, 비장애여성, 제주세계자연유산 함께 가보자’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김 소장은 “아름다운 제주를 장애아는 이유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풀어주고, 세계자연유산 현장을 우리가 직접 체험한 후 기행문을 써 이동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장애인들

이 겪고 있는 사소한 불편까지도 알 수 있는 감수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자연 속에서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살아 온 이야기를 하며 다시 활력을 찾는 귀한 경험이 되고, 장애여성의 팔, 다리가 되어 준 비장애인들과 하나가 되는 소중한 만남의 장도 됐다”고 했다.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아부오름을 차례로 탐방한 이들은 11월 넷째주 토요일에는 마지막으로 ‘만장굴’을 탐방할 예정이다.

〈조순옥 명예기자〉

道노인복지회관·뷰티高 산학협력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록)은 한국뷰티고등학교(교장 고영호)와 1·3세대 격차 해소와 문화이해 공동 노력을 위한 산학협력을 10월 7일 체결했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학기축하와 고령화사회에 1·3세대 공감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연구하며, 연 3회 이상 노인을 학교에 초청해 이발 및 피부마사지 등 뷰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쌍방이 희망하는 형태의 1·3세대 공감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한편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활동인증과 우수학생에 대한 표창 등을 수여하기로 했다.

전영록 관장은 협약식에서



“글로벌 뷰티 전문인 육성 교육기관인 한국뷰티고등학교와의 산학협력으로 청소년의 경로효친 함양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한발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 중에 한국뷰티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노인인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시니어·주니어 해피데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내년부터 교육시설 반편성기준 변경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내년부터 교육시설 반편성기준이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생 영유아를 함께 반편성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생 영유아를 함께 반편성하도록 기준일이 변경된다.

이처럼 교육시설 반편성 기

준이 변경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대상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취학 전·후, 보육·교육과정 시기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동일 연령 반편성 원칙에서 벗어난 월반, 유급 등은 연령별 보육료지원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아동 간 상호작용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에 보청기 · 휠체어충전기 비치

행정기관에 공공보청기와 전동휠체어충전기가 비치돼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청 사회복지과와 종합민원실, 26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공공보청기(사진)와 전동휠체어충전기를 설치했다.

보청기는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제주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대에 비치돼 방문객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전동휠체어충전기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갑작스런 방전으로 휠체어 작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민원실에 설치됐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편의 증진에 힘쓰기로 했다.

맞벌이 시대 맞춰 특수보육시설 확충

제주시 지역에 특수보육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맞벌이부부 증가와 자녀보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연장 ▲24시 보육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을 원하는 보육시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특수보육시설로 지정되면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월 급여의 80%를, 민간시설은 교사 1

인당 10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시간 연장의 경우 종전 오후 7시30분에서 자정까지 운영시간을 늘려야 하고, 장애아통합은 보육정원의 20% 범위에서 장애아동을 입소시키면 된다.

한편 제주시지역 보육시설은 모두 334곳이며, 이 가운데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시간 연장, 방과후, 휴일, 24시 등 7개 유형 특수보육시설은 9월말 현재 112곳이다.

제7회 제주시장애 장애인볼링대회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창아)은 10월 15일 제주시 에이스볼링장에서 제7회 제주시장애 장애인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를 비롯해 장애인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각·농아·지체·지



적·정신·신장장애인 부문으로 나눠 치러져 김용철씨 등 총 42명이 입상했다.

서귀포시 복지대상자 694명 증가

을 들어 서귀포지역의 복지대상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지역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혜자는 모두 1만1569명으로 지난해 말 1만875명에 비해 694명(6%)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대상자는 지난해 6590명에서 6781명으로 191명이 증가했으며, 한 부모가족은 1893명에서 219명이 늘어난 2112명으로 집계됐다. 차상위장애인은 지난해보다 139명이 늘었다.

서귀포시는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120만5000원(4인 가구 기준)에서 12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차상위장애수당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복지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모의 이혼·가출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 결여 등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서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신규 복지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은 물론 소득·재산 변동으로 중지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설탐방

(12)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를 아우르는 든든한 버팀목

1993년 동홍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을 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이후 15년 동안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송옥희 관장은 “지역사회에서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려면 모든 직원이 긴장하며 전문 복지관들과 네트워킹하고,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며느리 제주도민 거둬나기 등 사업 다채 송 관장 “주민과 함께 숨쉬는 사회복지공동체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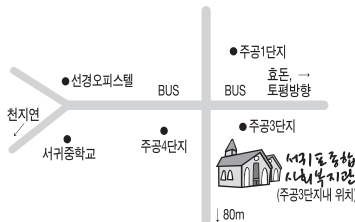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의 고유사업은 물론 청소년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조성사업과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제안기획사업인 ‘특별한 며느리 제주도민 거둬나기’, 그리고 노동부 지원 사업인 취업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한 홈헬퍼 ‘우렁각시’ 등의 다양한 차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조성 사업인 ‘내 꿈은 내가 만든다’는 지역사회 자원들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고 청소년들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청소년상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지역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내 꿈을 찾아서),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인터넷은 내 친구), 자아존중감 지원 프로그램(내 마음의 지도), 캠프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며느리 제주도민 거둬나기’는 지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제주사회에 신속히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상담, 문화정서지원, 홍보·네트워크 조성,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정현 과장은 “주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힘은 들지만, 결혼이민자 가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그로 인한 변화의 모습들을 하나 하나 확인하다 보면 자부심과 성취감 뿐만 아니라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송 관장은 “모든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뛰어 준 직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복지관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계속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고민하며, 함께 숨 쉬고, 또한 함께 더 나은 사회복지공동체가 되고자 오늘도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일꾼이 되겠다”고 했다.

문의=064)762-0211, 733-0677.

〈이명자 명예기자〉

다자녀가구 혜택 ‘풍성’

자동차 취득·등록세 50%감면...휴양림 숙박료도 절반 할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을 셋 이상 직접 양육하는 경우다.

감면신청이 가능한 자동차는 1대이며,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2006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당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3자녀 이상을 둔 부모의 예방접종비 부담 해소와 예방접종을 향상, 전염병 유행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가족(부모 및 형제, 자매)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가족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인근 의료기관에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에는 1인당 2만~2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다자녀가구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의 50%를 할인해 준다.

적용대상은 제주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으로, 숙박료는 방 넓이에 따라 현행 1일 3만~11만원의 숙박료를 50% 할인해 1일 1만5000~5만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백혈병·소아암 환자 ‘원스톱’ 의료비 지원

보건소서접수·심사·지출...백혈병 환자 최고 1천만원 지급

소아백혈병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아백혈병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방법을 개선, 환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앞당겨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이 보건소로 지원을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접수 및 심사, 지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민원인이 보건소로 지원을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접수 및 심사를 한 뒤 제주도에 지출요청을 하면 제주도에서

민원인 계좌로 입금하고 보건소에 통보하고 있다.

소아백혈병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18세 미만의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백혈병 환아에게는 최고 2000만원, 소아암 환아에게는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제주도는 9월 말 현재 32명의 환아에게 9800여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소아백혈병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알맞은 시기에 지급할 수 있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회 지적장애인 패션경연대회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지적 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지부장 허상호)는 10월 2일 김정문화회관에서 지적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전한 오락과 패션을 통한 사회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3회 지적장애인 패션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영예의 대상은 서귀포시장에 인종종합복지관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해인어린이집, 은상은 장



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동상은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 부설 주간보호이용시설, 인기상은 서귀포온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소년들, 꿈과 희망을 차다

TOP FC 2연패...희망 FC 준우승

TOP FC(제일지역아동센터·시설장 박영식)가 '2008 Happy Dream-Kick 축구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가 10월 11일 제주시 노형동 미리내공원 축구경기장에서 개최한 '2008 Happy Dream-Kick 축구대회'에서 TOP FC는 희망 FC(무지개지역아동센터·시설장 오효선,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시설장 서계원)를 3대 2로 꺾고 우승을 차지,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TOP FC에게는 트로피와 메달을 비롯해 30만원 상당의 축구용품이, 준우승팀 희망 FC에게는 메달과 20만원 상당의 축구용품이 수여됐다.

최우수선수(MVP)는 TOP FC 김성일 선수가, 득점왕에는 두드림 FC(제남아동복지센터·시설장 이상준) 김윤혁 선수가 선정돼 부상으로 자전거와 MP3를 각각 받았다.

축구경기 외에 선수 가족과 응원단 등이 참여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돼 단체줄넘기와 3인4각 이어달리기 등이

진행됐다. 단체줄넘기 우승은 엔젤 FC(천사의집·시설장 박희순), 3인4각 이어달리기 우승은 제주 FC(제주보육원·시설장 강도아)가 각각 차지했다. 우승팀에게는 부상이 주어졌다.

경기 내내 질서 정연한 가운데 단결된 모습으로 열렬한 응원을 펼친 응원상에는 구좌FC(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시설장 황호민)가 선정됐다.

제주유나이티드 FC 신병호 선수와 심영성 선수, 강준우 선수는 경기장을 찾아 사인회를 가지면서 출전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번 축구대회는 SK에너지(주)(대표이사 신현철) 후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렸으며, 8개팀을 A·B조로 나눠 링크제 방식으로 전·후반 각 10분씩 팀별 2경기를 치른 뒤 각조 1위팀이 결승에 올라 우승컵을 놓고 결승전을 치렀다.

행복날개 유소년 축구단에는 행복팀 4팀(TOP FC, 바다 FC(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시설장 고은택, 꿈꾸는지역아동센터·시설장 제현우), 구좌FC, 희망 FC)과 날개팀 4팀(제주 FC, 홍익드림 FC(홍익아동복지센터·시설장 김순실), 두드림 FC, 엔젤 FC)이 소속돼 있다.





Happy Dream-Kick 축구대회

- 1 TOP FC와 희망 FC가 맞붙은 결승전에서 TOP FC 신도현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하고 있다.
- 2 특별프로그램으로 마련된 단체줄넘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파란 가을 하늘을 향해 힘차게 뛰어오르고 있다.
- 3 축구대회가 끝난 뒤 선수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이 모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4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동한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5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TOP FC 신재현 선수가 참가선수를 대표해 선서를 하고 있다.
- 6 제주 FC 선수들과 두드림 FC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악수를 하며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다.
- 7 예선 B조 희망 FC와 엔젤 FC의 경기 모습.
- 8 결승전이 열리기 전 마련된 사인회에서 참가자들이 제주 유나이티드 FC 선수들로부터 사인을 받고 있다.
- 9 두드림 FC 응원단이 열렬히 응원을 하는 모습.
- 10 축구선수를 제외한 응원단이 함께 어울려 특별프로그램인 3인 4각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칼럼

급식소의 장애학생 어머니



김길용
수필가·시인

“내게 음악 시간은 그리 썩 좋지는 않았다. 약간의 언어장애도 있어 실기시험을 볼라치면 독창으로 불러야 하는데, 나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노래가 자주 끊기고, 음이 일정치 못하면 장애를 이해 못하시는 선생님은 질책의 연속이었고, 아이들은 일제히 웃음바다가 되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수교육법 제정 유명무실

필자의 추천으로 등단한 어느 젊은 수필가가 최근에 쓴 작품 중의 한 부분이다. 올해 서른여덟, 아직 숫총각이다. 선천성 소아마비로 언어장애가 있다. 그의 수필에 한 소녀를 연모했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장가드는 게 가장 큰 소망인 게 분명하다. 당연한

일인데도 아직 성사의 기미가 없어 보여 안타깝다.

그와 노래방에 함께 간 적이 있었다. 발음이 불분명해 가사 전달에 문제가 있었다. 어쩌랴, 그래도 열창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문제는 작품 속의 화자가 음악 시간에 창피를 당해 얼굴 빨개졌던 뼈아픈 기억이 상처로 지금도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쉬 아불지 않을 테고, 어쩌면 영원히 가슴속에 담은 채 살아갈지 모른다. 작품 속의 화자는 바로 수필가 자신이 아닌가. 가슴 아픈 사연이다.

하지만 그가 학생이던 1970년대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전에 없던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장애아의 교육권이 상당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도 그 하나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법을 개의치 않는 사례가 많아 문제다. 심지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받아놓고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 실정임에랴.

제주도만 하더라도 사립 중·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다.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가 이 지경에 이른다. 그나마 공립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별도로 설치돼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가 배치되고 교육과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현직에 있을 때,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 자신이 교육매니저 구실을 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봤었다. 중학교 삼 년 동안 급식소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던 그 어머니. 이목구비가 준수하게 잘 생긴 그 아들은 지적장애에 과체중. 어머니의 따뜻한 봉사가 아들을 잘 길들여 줬다. 쾌활해지더니 늘 웃는 얼굴을 했다.

장애아부모가 교육매니저 역할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산책로에서 환칠한 젊은이가 꾸벅 인사를 한다. 바로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그새 고3. 더듬더듬 운동 나왔다고 말하면서 환히 웃는다. 혼자였다.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이 눈길을 끌었다. 눈빛도 많이 맑아 보였다.

어느새 나는 그 학생에게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찾아내고 있었다. 어눌하지만 몇 년 전의 교장 선생을 만나자 반가워하며 스스럼없이 인사하는 그. 학교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에는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은 주도할 거라는 충분한 믿음이 갔다. 기뻐다.

그의 교육매니저는 급식소를 떠나지 않던 어머니의 젖은 손이었다.

시론

조손(祖孫)가정지원이 필요한 시기

금융위기 때 국민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가경제를 회생시킨 것이 10여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후유증은 현재까지 남아있는데 일자리를 잃어 재기에 실패하거나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해체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이혼, 가출, 혹은 방임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조손(祖孫)가정 아동이 크게 늘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도미노에 빠진 경제위기는 또 다시 가정파탄과 해체로 이어져 조손가정이 더욱 늘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다. 심각한 것은 조손가정 대부분이 경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한 사회적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6년세 40배 급증...복지서비스 절실

필자는 도내에 있는 조손가정의 지원, 그리고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문제와 해결방안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제주도의 조손가정은 2003년 12가구에서 2007년 244가구, 2008년에는 482가구로 6년간 무려 40배나 급증하였다. 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대리양육가정으로 보호되면서 수치상 급증한 이유도 있으나 사회양극화와 가족해체 현상 증가로 인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들 중에 일부인 78가구는 대리양육가정으로 등록되어 양육수당과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의해 월 10여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부모는 경제능력이 상실되어 손자녀의 양육은 커녕 본인들의 생계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은 없는 형편이다.

어르신들 역시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의 양육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으니 이들 조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지난달에 의미 있는 조례가 도의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조례는 필자와 여성동료의원의 공동발의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조손가정에 대해 조손가정수당과 학습수당 및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자치단체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정부지원 외에도 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확보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조례는 조손가정 아동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의 무화하고 관심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도내 조손가정 현황을 알아본 결과 도내 482가구의 조손가정 중 제주시는 218가구인데 비해 유독 서귀포시가 264가구로 인구대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실태 조사는 물론 현금급여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가장 어려움에 처한 조손가정에 대해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로 접근하는 것이 제주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실업 등에 의해 건강한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도정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해 본다.

기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만들기



이용철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장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것은 양성평등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일반인들은 양성평등하면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양성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그렇다. 양성평등이란 완전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여성관련 법·제도들이 과거에 비해 여성

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해 왔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여성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직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아동양육을 위한 제도와 신념,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인력개발과 진출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도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역할변화, 남녀관계변화를 위한 의식의 전환, 성차별에 대한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도 구로는 성별영향평가가 있다. 도정의 주요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 제거 및 모든 정책이 성평등 방향으로 기획,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 분석하는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2007년 15건, 올해 21건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들의 정책수행에 있어 성차이와 성차별 문제 인식능력을 기르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2007년 753명, 2008년 800명 등 연차적으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양성평등의 실천은 일과 가정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실천과 책임이 있을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남녀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존중받으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모두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이제 남성과 여성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을 허무는 작업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확산돼야 할 것이다.

남성에게도 보다 넓은 삶의 장을 열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평등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4회 희망제주 복지포럼

“장애인복지관 기능 · 역할 재조정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환)는 10월 10일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희망제주 복지포럼을 개최했다. 본지는 제4회 희망제주 복지포럼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제4회 희망제주 복지포럼이 사회복지시설 · 단체 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삼다수홀에서 열렸다.

“다른 복지기관과 연계체계 강화해야”

변용찬박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사업 활성화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은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시설로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도 이용하는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설”이라고 설명한 뒤 “외부환경의 변화와 함께 장애인복지관의 정체성, 장애와 관련된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설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 박사는 “특히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확대에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 자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시대조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변 박사는 장애인복지관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지역사회모델에 기반한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센터 ▲지역사회의 다른 복지기관과의 연계체계 강화 ▲장애인복지관 평가제도 변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시행 및 재정지원의 합리적 결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중심의 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해 왔음에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 박사는 그 이유로 대학병원과 특수학교 등 재활관련기관의 증가 등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서비스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점을 들었다.

이어 변 박사는 “현재의 장애인복지관은 직접적인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재활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애인복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보다는 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서 자원동원, 자원연계 등의 기능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관은 서비스 조정자 또는 사례관리자의 역할, 권익옹호자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인기관의 중심적인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인테이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료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지역사회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교육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지역사회 교육기관으로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변 박사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변화 등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의 재정립이 요구된다”면서 “비장애인과 평등한 사회참여 및 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실버산업 개발해 노인복지의 메카로 발전”

전영록교수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사업 활성화방안 모색'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과 전영록 교수는 “휴양지로서의 제주자치도 특성을 살려 실버산업을 개발하고 제주도를 노인복지의 메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을 갖춘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복지수요자들의 관심과 육지의 복지소비자들을 제주로 모이게 한다면 분명 복지는 소비가 아닌 투자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름다운 제주, 평화로운 제주라는 지역적 · 자연환경적 특성을 살려 웰스케어타운을 조성, 웰스케어관광을 상품화 할 가치가 있으며, 이 분야는 고비용과 장기체류를 필요로 하므로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일본 고베의 ‘행복존’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한적하고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휴양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사회복지모델로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역설했다. 그는 “제주도에는 현재 360여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혼란 등으로 경로당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과 노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본적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한 뒤 지역거점 경로당을 운영하고, 지역거점 경로당에 전문가를 파견, 전반적인 경로당 운영을 총괄해 효율성을 기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조직적 · 체계적 · 지속적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장수지역 이미지 브랜드화도 주문했다. 전 교수는 “장수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장수노인을 부양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와 함께 일본 등 장수 선진국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청정자연환경 이미지를 제주도의 장수이미지와 결부시켜 웰빙산업으로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수이미지를 지역발전의 지역 브랜드로 제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장수노인의 인적자원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 ·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개편이 요구된다”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사진 공모전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한동휴)는 오는 7일까지 사회복지현장의 진솔한 삶과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한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희망·사랑·나눔·봉사,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일반부문,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참가하는 학생부문, ‘사랑의 열매’가 형상화된 모습을 포착하는 이벤트부문으로 나눠 열린다.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contest@chest.or.kr)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아차상 등 모두 12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제민일보사, 제주일보사, 제주타임스, 한라일보사가 후원하며, 'SK skopi 제주점'이 협찬한다.

문의=755-9810.

장애인 문화체험관광 실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10월 8일 바르게살기운동서귀포시협의회영천동위원회(위원장 김장만)와 효돈동위원회(위원장 백상학)와 공동으로 평소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재가장애인과 함

께 아프리카박물관 등 관광지 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회원들이 손수 자원봉사활동에 나섰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삶의 의욕을 높이는 뜻 깊은 기회였다.

알/림/마/당

22일 제주시민회관서 청소년동아리축제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는 오는 22일 제주시민회관에서 제주 청소년동아리축제를 개최한다.

동아리경연대회와 동아리참여대회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동아리 10팀과 12팀이 동아리경연대회인 록(그룹사운드)경연대회와 가요&댄스 경연대회에 각각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동아리참여대회는 공연마당과 체험마당으로 운영되며, 공연마당에는 록, 가요, 댄스 외

에 공연이 가능한 청소년동아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험마당은 네일아트, 저글링, 캐리커처 등 특색 있는 동아리들이 참가한다.

또 2008 동아리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대상으로 그 동안 활동했던 사진 등을 전시하는 동아리참여대회 전시마당도 마련된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자원봉사축제도 함께 열려 우수활동지도자 및 자원봉사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도 수여된다.

문의=751-5041~2.

제주장애인야간학교, 검정고시대비 학생 모집

제주장애인야간학교는 이달 말까지 검정고시대비반(초·중·고등부)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각 과정별로 5명이며, 대상은 12~60세의 자학력·무학력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다. 학생에게는 이동지원리프트차량이

지원된다. 수업료는 무료.

초등부는 화·금요일 오후 2시부터, 중등부는 월·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고등부는 월·금요일 오후 7시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문의=751-9102.

삼다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7일 열려

2008 삼다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가 오는 7일 제주시 우성볼링장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볼링협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스포츠포럼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

번 대회에는 150여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B1 전맹부와 B2·B3통합 지시력부로 나눠 남녀 개인전으로 대회가 치러지며, 3위까지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소/식/마/당

한마음 한가족 체육대회 개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10월 11일 제주중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위탁이동과 위탁부모,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한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미니올림픽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신나는 토요일 가족과 함께하는 뉴스터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필리핀,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중국, 일본 등 6개 국가 다문화가정 35명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네째주 토요일 '신나는 토요일 가족과 함께하는 뉴스터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예체험, 허브향기 속으로, 해저탐험, 고구마 캐기, 가족앨범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말까지 진행된다.

영락복지관 경로대학 수학여행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 경로대학은 9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담양 대나무박물관을 시작으로 거제도포로수용소, 거제도 앞바다의 해금강과 외도 등 남해인의 아름다움을 맘껏 돌아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 120명이 참여한 제1차 호스피스양성과정과 제2차 상담양성과정의 아카데미교실 수료식을 10월 9일 가졌다.

제주도자원봉사센터는 지속적으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교실을 개설, 전문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5회 자원봉사자 교육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는 가톨릭의집 등 법인 산하 시설의 자원봉사자간 단합 등을 유도하기 위해 10월 11일 성가정노인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제5회 자원봉사자 교육을 개최했다.

자원봉사자 210여명이 참가한 이날 교육에서는 시설별 사례발표와 웃음치료사 김은영씨의 강의 등이 진행됐다.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경로잔치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희경)은 10월 14일 구좌지역 어르신 250여명을 모시고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경로잔치는 각설이의 진행 아래 구좌중앙어린이집과 세화중앙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율동공연, 하나아트풍물패 공연, 제주빅밴드 공연 등이 이어져 지역 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일본 연수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최희순)는 10월 1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다양한 자립생활 서비스 접근을 위해 일본 연수를 실시했다.

중증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등 14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에서 제주센터는 일본 타치가와자립생활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어 양국의 자립생활 발전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공무원 등과 장애인복지컨퍼런스도 진행했다.



제3회 희망스토리 작품전시회

작업활동센터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10월 9일부터 3일간 일배움터내 전시실에서 '제3회 희망스토리'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지적장애인들이 비즈공예와 퀼트, 화훼장식 등 4개 영역에서 각자의 특성을 살린 직무교육을 통해 얻은 작품들이 전시됐다.